

‘동성애에 관한 목회적 관점’이란 문서에 대한 추가적 설명

목회 사역에 종사하는 우리 모든 동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금 나사렛교회의 회원들과 친구들은 “동성애에 관한 목회적 관점”이란 목양에 관한 우리의 문서를 읽어볼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통찰들을 제공합니다.

왜 이 같은 문서가 쓰여지게 되었는가?

중앙감독 위원회는, 이전에 동성애에 대한 작금의 대중문화에서 증가하는 대화개입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이런 이슈에 관한 성서적이고 교회적인 확증을 나누려는데 있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가?

이 문서는 우리 교육종사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 의해 우리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고 발전되었다.

무엇이 이 문서에 있어 근본적이고 기초적 가정들인가?

중앙감독위원회에 의해 준비되는 어떤 문서든지 우리는 다음의 세가지 영역들에 기초한 아주 기본적인 가정들에 의해 안내된다:

- 이런 가정들은 우리가 그 영감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성경에 그 기초를 둔다.
- 이들은 값없는 은총, 완전한 사랑, 그리고 급진적 변화에 대한 웨슬리안의 신학적 관점에 기초를 둔다.
- 이들은 통치원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중앙총회에서 발전된 것으로써 우리 **장정**의 인정된 권위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중앙감독위원회의 목회적 문서들이 성경, **장정**, 그리고 우리 웨슬리안-성결전통에 항상 부합하는 가정들로부터 된 문서들로 읽어주기를 요청한다.

왜 이 같은 추가 설명 문서인가?

이 문서는 수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 잘 받아들여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서에 관한 몇몇 동료들에 의해 제기돼왔던 몇 가지 질문들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다음 사항들을 주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이 문서는 중앙감독위원회로부터의 통치가 아니다.
- 이 문서는 신조 혹은 위원회의 교지가 아니다.
- 중앙감독위원회는 교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이 답변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변혁케 능력 안에 좀 더 깊은 믿음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나사렛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 출판 이래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는가?

1. 이 문서는 동성애에 관한 성서적 전제들에 충실한가?

첫째로, 여러분의 중앙감독위원회로서, 우리는 인간의 성에 관한 성서적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키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 이 문서가 점차적으로 피할 수 없는 대화개입의 다른 수단들을 대변해 줄지라도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웨슬리안으로서, 우리는 성서적 메시지에서부터 이 주제에 관한 우리의 답변과 진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논의를 개선해야만 한다. 우리는 동성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비성서적이며, 나사렛교회에 자리할 곳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기록 전체 사상의 요지이다. 추가적으로 이문서는 우리의 공감대를 바꾸지 못한다.

2. 무엇이 동성애 기질과 동성행위 사이의 차이인가?

웨슬리안 성결전통의 상속자들로서, 우리는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논의할 때 웨슬리안 4대 원리라고 불리는 것을 이용해야만 한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동성애 주제가 웨슬리의 지정한 관점으로부터 검증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성경
- 이성

- 전통
- 경험

우리의 헌신은 성경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견해들과 이해들이 확장될 수 있는 다른 관점들을 관과 한다는 것은 아니다.

3. 우리가 동성애 생활을 정죄하고 그 기질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웹사이트에 제시된 문서가 모든 죄로부터 끊을 것을 정말로 요구하고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그 문서는 폭 넓은 복음이야기의 정황 속에서 읽혀져야만 한다. 그것은 죄의 전체를 포함하는 폭넓은 관점으로부터 즉 인류를 파멸시켰던 첫 번째 죄의 발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여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까지 동성애의 이슈를 설명한다. 정말로, 모든 기고자들은 어떤 죄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문서는 동성애 이슈에 연관된 모든 요소에 답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육적인 마음으로 이끄는 원죄가 그들의 마음을 손상시키고, 변형시키고, 오염시킨 사실에 대해 참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성결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복종하고, 완전한 헌신, 그리고 전폭적인 믿음으로 그들을 권고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복종하고 내려 놓아야 하는 동일한 필요를 인정한다. 그것은 옛 기질과 욕망의 정황 속에서 시험을 싸워 이겨내야 하는 믿는 자의 의무이기도 한다.

4. 이 문서가 나사렛교회가 동성애 행위를 지금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더 나아갈 수 없다. “은혜의 관용”은 종종 죄와 죄인을 둘 다 수용하는 것으로서 잘못 이해되어 왔다. 이것은 은혜의 메시지의 풍자이고 사회 관심에 참여하는 어려운 이슈들의 어떤 논의도 제한하는 속임수로서 종종 이해되어왔다.

전체 교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제공된 문서에서 어떤 진술도 우리 장정에 제시된 진술에 보조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라. “동성애에 관한 목회적 관점”에 관하여, 동성애에 관한 모든 진술은 장정에 인간의 성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된 것에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배열을 위해 구성된 내용의 세련된 편집 작업이 이 문서의 저자나 우리 위원회의 의도했던 것보다 독자들을 다른 결론에 이르도록 생각의 틀을 간과하거나 혹은 놓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바람이 동성애 이슈에 관한 성서적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나누기 원하고, 우리 장정에서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에 변함없이 충실하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데 있다.

5. 이 문서가 “독신이 되었거나 독신으로서 동성인 사람은 교회 생활과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고, 사역들을 인도하며, 위원회들, 그리고 성가대에서 찬양 등을 인도하도록 초대될 것이다”란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장에서 “독신”이란 유용한 용어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용어가 간과되지 말아야만 하는 명료함을 제공한다. 나사렛교회가 개 교회의 생활, 사역, 그리고 정치 참여에 관한 전통적인 표준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분명하게 명시하는 용어들 없이, 교회생활에 참여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성 신자들은 또한 그들이 만약 결혼했다면, 결혼에 대한 헌신과 제한 속에서 그들의 성을 표현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유사한 표준으로 살아야만 한다. 이성들의 미혼자들은 장정의 그리스도인의 행동규약에 표현된 것과 같이 행위에 대한 성서적 표준에 따라야 할 것이 기대된다.

이 문서로부터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각 독자는 이것과 앞으로 다른 목회적 전망들의 내용을 기초해서 의견들을 형성하기 바라는 것이 중앙감독위원회의 바람이다. 당신이 유익하게 취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하는 관심사이다:

-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의 권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요즘 같은 도전이 되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많은 원인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문화가 우리가 선포하는 혹은 실천하는 가치들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우리는 성서적 메시지를 충실하게 선포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이 구속과 변화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설교할 것을 촉구한다. 구속과 성결의 변혁하는 메시지가 없이, 우리의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단지 도덕적 이상에 머무르게 할 뿐이다.

-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이 타협 없이 구속적이 되기를 촉구한다. 중앙감독위원회가 용기 있게 난해할 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대화를 다루어 왔음을 이 문서를 통해 명백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독자들이 성서적 성결의 윤리를 선포하고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절망적인 곳에 은혜를 넓혀 가기를 기대한다.

결론

중앙감독위원회는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여러 유형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 만이 아니라 목회 사역을 하는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길 원한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위탁되어온 이 같은 믿음에 우리 목회자들의 충성에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우리는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지역에 전파될 복음의 변혁하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함께 기도한다.

이 소책자의 어조는 죄의 문제와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성결하게 하는 은혜에 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수용한다. 이 소책자는 혹자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 모든 사람에게 선행은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것은 또한 공동체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실천해 온 사람들 즉 부활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발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대된다.

그리스도 없이, 인류는 타락하고 또한 부패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일그러진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비록 의롭지 못한 상태에도 존재한다. 웨슬리는 성결의 역사가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아주 분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손상을 경험하는 인류의 내재하는 결과들과 평범한 옛 습성, 즉 하나님의 빛과 모든 율법에 반항하는 다양한 육성 사이에 선을 어디서 그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인류의 반항에 대한 그의 기술에서 분명하게 했다. 타락으로 인한 인류에 파손을 가져온 손상들은 우리의 도덕적 영역과 심리상태 양쪽 모두 광범위하게 손해를 입혔다. 구속은 거룩한 것이지만, 항상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있다”

중앙감독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성서적 성결의 심장과 삶을 추구하도록 권면하는 동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개인을 수용하는 은혜를 모든 곳에 확장하기를 촉구한다는 것이 그 정신이다.

